

1. 대림절과 신년의 시간이해

11월 말 혹은 12월초에 시작되는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 되지만 또한 마지막을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다. 대림절의 시간을 종말론적 의미로 본다는 것은 교회가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반추하는 것이다.

교회력의 시작으로서 대림절은 11월27일에서 12월3일 사이의 한 날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8세기 교회력의 신년으로 대림절을 삼았던 서방교회의 11월30일(성안드레 기념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시작한데서 기원을 두고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며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한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종말의 시간이해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당시 교인들은 예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maran atha(주께서 오셨습니다, Our Lord has come)와 marana tha(주여,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로 고백하였음이 분명하다.¹⁾ 이로부터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대림절의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았음이 분명한데 먼저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에 관해서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²⁾

2. 대림절과 신년의 설교이해 - 대림절에 교회는 어떻게 성서정과를 따라 본문을 이해할 것인가

1) 성서정과를 활용한 설교본문사용의 장점

설교자는 성서정과와 일과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가 매 주일마다 정한 내용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때 그 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염려가 있을 줄 아는데 이것은 수요예배와 금요일예배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별히 성서정과를 따른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첫째, 성경의 주제와 교회력이 상호 조화되어 체계적이고 목회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

둘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른 선포적인 설교가 가능하다.

셋째, 성서정과를 따른 설교는 성서일과와 연결되어 성도들의 매일의 삶속에서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이어 갈 수 있다.

넷째, 설교자의 설교준비를 위한 충분한 연구를 하게 된다.

다섯째, 설교와 목회계획이 일치되는데 이는 설교자의 그 때 그 때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성경의 흐름 속에서 창의적 목회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1) 이는 고린도전서16:22에서와 초대교회의 중요문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디다케』(열두 사도의 가르침)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p. 223.

2) 성서정과 활용의 예시 - 대림절 (A년도를 기준으로)

(1) 기대와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대림절 - 주일예배설교

대림절 1	대림절 2	대림절 3	대림절 4
희망의 예배 Hope Worship	평화의 예배 Peace Worship	사랑의 예배 Love Worship	기쁨의 예배 Joy Sunday
마태복음 24:36-44	마태복음 3:1-12	마태복음 11:2-11	마태복음 1: 18-25

(2) 기대와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대림절 - 새벽예배설교

주일예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희망의 예배 마 24:36~44	살후 2:1~4	사 60:1~3	마 4:12~16	눅 2:28~35	엡 5:9~14	히10:32~35	고전 1:7~9

(3) 기쁨으로 맞는 성탄절설교

12/25	12/30	12/31
성탄축제 예배 Christmas Worship	성탄 후 첫째 주일 Old Years Worship	송구영신 예배 & 약속의 말씀 Old Years & New Years Worship
누가복음 2:36-39	마태복음 2:19-23	

3) 성서정과를 통한 일과 활용의 예시 - 대림절(C년도를 중심으로)

주일예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대림절1 눅 21:25-36	렘 33:1-16	시 25:1-10	겔 5:1-9 (10-17중략)	슌 2:1-9 (10-13중략)	살전 3:1-5	살전 3:6-13	계 9:1-6 (7-21중략)
대림절2 말 3:1-6(4)	빌 1:1-11	빌 1:12-18	눅 3:1-6	겔 11:14-19 (1-13, 20-25중략)	슌 3:7-10 (1-6중략)	단 4:34-37 (1-33중략)	사 12:1-6
대림절3 슌 3:14-20	빌 1:19-26	빌 4:4-9	눅 3:7-18	사 13:1-4 (5-22 중략)	사 14:1-5 (6-32중략)	슌 2:9-11 (1-8, 12-15중략)	사 15:1-9
대림절4 히 10:5-10	미 2:10-13 (1-9중략)	미 4:1-5 (6-13중략)	미 5:1-4 (5-15중략)	시 80:1-7	눅 1:39-45	눅 2:1-14	딤후 1:1-9 (10-16중략)
성탄절후1 골 3:12-17	삼상 5:1-5 (6-12중략)	왕상 1:33-39 (1-32, 40-53중략)	12/29 삼상 6:7-12	왕상 6:9-13 (1-8, 14-38중략)	12/31 눅 2:41-52		

대림절의 설교는 성서정과에 주어진 본문을 설교자가 교회의 형편과 목회적 정황을 따라 정하되 일과작성은 정과의 본문을 기준으로 일주일 교우들이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본문을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특별히 주일설교의 방향을 따라 온 교우들이 한 주간의 말씀을 일과를 따라 읽고 묵상하도록 한다.

대림절의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예수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날에 있을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에 관하여 초점을 두도록 한다. 더불어서 종말적 신앙 안에서 회개의 의미와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 초점이 주어지도록 한다.

대림절의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의 의의와 축하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변의 헌신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가 되도록 한다.

3. 대림절과 신년의 목회(계획)이해

대림절은 주어진 예배공간에 대림절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 교우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1) 대림절 목회계획 예시

배너부착	한 주전에 대림절 예배를 위한 배너를 부착.
엽서와 암송카드	대림절 설교 본문 엽서와 말씀 암송카드를 코팅하여 준비
주일 설교와 새벽예배	성서정과에 따른 설교본문

2) 대림절 강단 촛불

보라색 초 4개	보라색 : 경건한 기다림 상징
보라색 초 2개 + 장미색 + 핑크색	장미·핑크색 : 기쁨 상징
보라색 초 4개 + 흰색 초 1개	보라색 : 회개와 고난 · 인생의 아픔 상징 흰색 : 주님의 영광과 순전함 상징

네 개의 보라색 초는 대강절 네 주를 나타낸다. 보라색은 경건한 기다림을 상징한다. 대강절의 촛불점화는 교회마다 각각 조금씩 의미를 두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는 장미색 혹은 핑크색을 초를 3, 4번째 주에 사용하면서 그 초를 기쁨의 초라 부르는 경우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점화과정을 통하여 보라색은 회개와 고난과 인생의 아픔을 상징하는 색으로 흰색은 주님의 영광과 순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기도 한다.

또 어떤 교회는 4개의 보라색 초와 한 개의 흰색 초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보라색 초는 4주간 불을 밝혔기에, 성탄절이 되면 흰색 초만 남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대강절 초는 기다림의 의미 외에 희망, 평화, 사랑, 기쁨의 상징으로 온 교우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송구영신 예배시 약속의 말씀 나누기

송구영신 예배시 특별히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 중 약속의 말씀이 있다. 약속의 말씀은 한 해 교우개인과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개인과 가정에게 배분되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2)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는 교우들의 가정을 기준으로 한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으로 나누어 준비를 하고 5인 가족이 넘을 경우 현장에서 가족인원에 맞게 봉투에 필요한 개수만큼 넣어 주도록 한다. 약속의 말씀은 그 가정의 대표가 나와서 가족의 수대로 말씀을 받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봉투 안에는 그 가정의 가족 수에 따른 개인약속의 말씀과 그 가정에 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도록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로 새 해에 사용되는 데 첫째는 신년심방을 통해 각 가정이 받은 말씀을 따라 목회자가 심방을 받는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하도록 한다.

둘째는 새 해 예배를 가정에서 가정의 인도를 따라 드릴 때 사용되는데 이 때 가장 혹은 예배인도자는 한 해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개하며 온 가족이 함께 읽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신년을 맞이하여 세배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는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세 배돈과 함께 자녀들에게 주도록 하여 부모공경의 법을 말씀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참고도서

Donald L. Hamilton. *Homiletical handbook*.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2.

Michael Duduit ed. *Handbook of contemporary preaching*. Broadman Press, 1992.

Michael J. Quicke. *360-degree Preaching*. "전방위 설교". 이승진 역. 서울:CLC, 2014.

Willimon Lischer ed.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US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Edwin C.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 Vol1*. "설교의 역사(I)". 김남준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1992.

장로회총회 국내선교부 편. *총회력과 성서정과*.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2012.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대서, 2012.

김종렬 엮음. *총회 교회력과 성서정과에 따른 2014 예배와 강단*. 서울: 기독교문사, 2013.

정장복외 5인. *2014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핸드북*.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13.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 서울: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4.

2015 Logos Bible software 5.

2011 Bible Works 9.

말씀

마 24:36~44

본문
배경

마태복음 24-25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심판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오실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은 노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멸망한 이유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깨닫다”는 헬라어 단어는 ‘이해하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기억하라(시니에이미syniēmi)”는 말씀이었습니다.

(신 32:7,29)

예수님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 13:14)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렸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syniēmi)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 13:19, 16:9-11, 24:39)

본문
이해

1) 40절과 41절은 반복해서 데려감과 버려둠을 강조하고 있는데, 데려감과 버려둠은 서로 상반된 정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 예로 노아 홍수 때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역시 함께 일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은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둘은 남편과 아내 또는 가족이거나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맷돌은 개인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웃과의 친목을 다지는 일에 사용되었던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3)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깨어있으라는 말도 준비하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36-46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마 26:38, 40, 41)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잠들고 말았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예수님만을 생각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마 26:69-75) 역시 소망을 갖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말씀
본문
배경

마 3:1~12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는
 1)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이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사 40:3)이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공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지루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한 뱀의 유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세례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 53:5, 눅 2:14)

평화는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민 25:12)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뱀’은 여전히 유대인 지도자를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번이나 ‘독사(viper)의 자식(새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마 3:7, 12:34, 23:33)

세 번 모두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것입니다. 그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수 많은 기적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좋은 열매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것은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여전히 자녀로 삼아주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불에 태워질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10, 12절). 그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눅16:19-31)에서 부자가 죽어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있어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야 왜 자신이 꺼지지 않는 불에 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죽어서야 알았습니다. (눅 16:30)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 11:2~11

본문
배경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모습으로 본문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늘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즉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죄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과 상관 없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심판은커녕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심지어 로마 군인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의 가족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놀랐던 것입니다. (마 3:11-12)

본문
이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11절)고 말씀하신 까닭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는 옛 언약의 시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 11:13)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대속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만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말씀하신 이유 역시 그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과 구원이 하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있다면 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직은 구원의 때이기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세례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실족’(6절)했습니다. ‘실족’이란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나병환자를 치료하신 것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믿음을 더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 생각한 사람들은 실족했지만 구원과 사랑의 주로 생각한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말씀 마 1:18~25

본문 배경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기(20절) 주의 사자가 직접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접한 요셉은 자신을 배신했다는 배신감으로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물론 본문 어디에도 마리아가 자신과 정혼한 요셉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에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해결할 수 없는 오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셉이 이해를 하던지 아니면 못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이해 본문은 요셉의 생각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서둘러 아기가 태어날 것과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1) 예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해야 천국이 임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마 3:2, 4:17)
- 2) 임마누엘은 예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본문 이외에 신약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맞는 표현이지만 죽으심을 설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마누엘을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말씀

눅 2:36~39

본문
배경

누가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목자들(눅 2:8-20)과 시므온(눅 2:25-35)과 안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들 대신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마 2:1-12).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 1) 선지자였다(36절).
- 2) 나이가 매우 많았다(36절).
- 3) 과부였다(3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나 선지자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가 과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부를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안나는 저주 받은 여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녀가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은 여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언제부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을 잃은 현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나이나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이해

안나 선지자는 84년을 혼자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 날에 여인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 일꾼의 하루 노동비가 한 데나리온이었음에도 실제로 받은 1년 노동비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200 데나리온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여인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안나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남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열악함과 과부에 대한 따가운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녀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 1)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37절).
- 2) 주야로 금식했다(37절).
- 3) 기도함으로 섬겼다(37절).

나이가 많고 여인이자 과부인 안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신 것은 위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안나 여인을 선지자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자주 금식했으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젊고, 잘생기고, 유능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안나 선지자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안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와 섬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되지거든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쉬었을 때가 아니라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 2:19~23

본문
배경

헤롯은 죽기 마지막 몇 년 동안 왕위에 광적으로 집착하여 세 아들과 아내까지 포함하여 왕위를 노린다고 상상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인 사건입니다.(마 2:16)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사자가 꿈 속에서 요셉에게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을 것을 말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호세아 11:1절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마 2:13-15)

본문은 ‘헤롯이 죽은 후’로 시작한 것은 애굽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출 4:19)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마 2:20)고 동일하게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내아이를 죽이려는 헤롯은 사내아이를 죽이려던 바로를 상징하며,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로운 모세’(New Moses)이기 때문입니다.

(신 18:18)

본문
이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당시 나사렛은 고작 480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모여 살던 언덕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요셉이 나사렛에 정착한 이유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이 말씀이 이사야 11:1절을 인용한 것이란 점입니다.

이사야 11:1절에는 나사렛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나사렛이란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사렛은 1세기 이전에 새로 생긴 마을로 나뭇가지와 같이 불품없게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지’와 헬라어로 ‘나사렛’은 매우 비슷합니다.

나사렛이 전해주는 진정한 의미는 장소나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고 물었습니다. 나사렛이란 마을은 도저히 메시아가 머무실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27절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 교회에 본이 된 교회였지만 (살후 1:4)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은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것을 말하며, 속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한 것이 바로 미혹이었습니다. (고후 11: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 즉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4:4-5)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한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모이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언이나 말씀을 해석해주겠다고 접근했고, 심지어 사도들이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단들 역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마지막 날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은 멸망 당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구원의 메시아를 소망해야 합니다.

(살전 5:1-6)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소망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을 원하십니다.

본문은 당시 어두운 시절(포로생활)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로 주린 자와 괴로워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며,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낮과 같이 밝은 빛이 될 것에 대한 이사야 58:10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 58: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빛’은 어둠과 상반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희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사야 42:6, 49:6절의 말씀은 이 빛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의 ‘여호와와 영광’을 2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한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호와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성경이 2절을 ‘왜냐하면(because)’으로 시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날 것임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영광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통해 나타날 것이며, 이사야 59:10절은 구원자가 시온, 즉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 59:20)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히브리어-*šāwāh*)은 ‘깨어나다(arise)’라는 뜻으로 시온, 즉 예루살렘은 희망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반복해서 예루살렘이 깨어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사 51:17) 여호와와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사 52: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 24: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 24:43)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 25: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6: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 26: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나라들과 왕들’은 이방나라를 말하며,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와서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2:1-12절은 동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내용을 기록함으로 본문의 내용이 성취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렇듯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을 자주 예언함으로 소망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사 42:6; 49:6)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은 잡히실 것을 걱정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9: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 9:1-2)

-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가버나움은 ‘해변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헤롯의 별장과 로마군대가 주둔해있고,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터전이었기에 멸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이 잡히고(12절),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라오스(*laos*)’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역을 열 두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 (마 10: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마 12: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 (마 12: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희망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우리의 사역임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흑암에 앉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빛을 보고도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한 반면 이방인들(동방박사)은 오히려 그 빛을 보고 찾아왔다는 점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어 주셨다는 점입니다(요8:12).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두움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더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망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했던 시므온에 대한 신상정보가 독특합니다. 나이와 출신은 밝히지 않고 그저 그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5절).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눅 1:6, 23:50-51; 행 10:22).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과 그의 임종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셨고, 그를 헤롯 성전의 뜰로 인도하셨습니다(눅 2:26-27).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25절)는 마태복음 5: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와 동일한 것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21절은 이 위로가 ‘지금’ 우는 자에게 임할 것을 강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위로를 받았음을 가르쳐줍니다.

(눅 6: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이지만 부와 명예를 쫓는 자들은 세상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눅6: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눅18:25)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위로가 ‘영원한 위로’임을 강조했습니다(살후 2:16-17).

시므온은 이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사 49:6) 영광임을 증거했고(사 40:5),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사 8:14, 28:16-17).

시므온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1:11), 심지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으며(눅 4:29),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눅 19:47).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어두움의 일은 열매가 없고 빛의 일은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 열매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엡 4:24).

‘착함’은 에베소서 2:10절에서 ‘선한 일’로 말씀합니다.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4:15절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의로움’은 거룩함을 말하며,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엡 4:24).

로마서 12: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쳐줌으로 하나님의 뜻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경우(마 13:22; 막 4:19).
- 2)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른 경우(벧후1:8).
- 3)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빛의 열매는 단순히 어두움의 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필요한 사역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이 고난은 비방과 환란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같은 고난을 받는 자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33-34절).

32절의 '견디어 내다'는 의미는 막연하게 참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뜻을 꺾지 않다, 굴복하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방과 환란을 받아야 했습니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 비방과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주는 것이기에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방과 환란에도 빛을 받기 전, 어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1:27절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음"을 밝힘으로 어떠한 환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방과 환란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과 더불어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긴 것까지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34절). 물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비방과 환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비방과 환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어내십시오. 환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보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이며,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 즉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떠한 용도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8절은 이 선물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성도들)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쌓아두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이유도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8:7-13; 10:23).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9절).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단어는 ‘교제’를 의미하기 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16절에 두 번이나 코이노니아가 등장하는 데 그곳에서는 ‘참여’로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전 10: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은사를 자신의 자랑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빛으로 오신 소망의 메시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자 세리장으로 그의 이름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도시의 세금을 관장하는 사람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리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대접을 받은 이유는 세금을 내는 유대인들과 세금을 걷어가는 로마인 사이에서 세리가 중개인 노릇을 하면서 직업을 이용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19:8)라고 말한 것은 이미 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3:13)는 말씀대로 합당한 변화가 이미 그에게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삭개오는 분명 자신의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삭개오는 자신이나 심복들이 저지른 비리(강탈)에 대한 철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전 재산의 반이나 되는 엄청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눅 19:8).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음(to seek, 19:3)”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8:18-30절에 등장하는 유대인 부자 청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삭개오는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마 10:6).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이 삭개오입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은 그가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가 예수님을 바라고 믿었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그것도 작은 키로 몸부림을 치가며 돌무화과나무에 오르는 삭개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우수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비아냥거리며 웃었을 것이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가 있던 나무로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는 하나님보다 신접한 자나 마술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사 18:19-22).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 16:9-12; 17:19) 이사야서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란 뜻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사 7:13-15).

'전에 멸시를 당한 것'과 '후에 영화롭게 하실 것'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흑암의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큰 빛'을 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작은 빛이 아니라 누구라도 확연히 볼 수 있는 '큰 빛'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그 큰 빛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건지셔서 영화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 4: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고후 1: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시 27:1)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물론 그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며(요 8:12),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시 119:105).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요 1:1). 그 빛과 함께 있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 11: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실 것'(3절)을 말씀하셨는데, 이 더하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마 6:33).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메시아의 탄생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과 달리 누가복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목자(눅 2:8-140, 시므온(눅 2:25-35), 안나 선지자(눅 2:36-39)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쁨의 좋은 소식(눅2:10)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소개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마리아의 찬미 중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으셨고’(눅1:52)에 해당하는 비천한 자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자가 비천한 자의 부류에 속한 이유는 목자들이 양들의 먹이를 찾아 이방인의 땅에도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절의 ‘지키더니’라는 셈족어의 특별한 표현이 사무엘상 16:11절에 등장하기 때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백성(all the people)’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큰 기쁨(great joy)’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마 2:10) 그들이(동방박사)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참고로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요2:11)을 첫 ‘표적’으로 기록한 반면, 본문 1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표적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 16: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11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구주)’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할 영광임을 노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찬양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그대로 했다는 점입니다.

(눅 19: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란 사실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요 14:5),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며(요 14:8), 유다는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세상은 다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참고19절, 요 14:22). (요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이렇듯 도마는 방법을, 빌립은 확인을, 그리고 유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혜사(Paraclete)는 법률적인 용어로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하시는 대언자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제자들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요 14:12).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요 14:13).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14: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단순히 평온하고 화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요 14:27).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할 것을 3번 말씀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평화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해주셨습니다(요 20:19, 21, 26).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즉 바리새인과 세리는 서로 상반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던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등장인물을 통해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한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따로”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11절). 성전은 바리새인만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 56: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눅 5:32).

(눅 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이 세리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로 평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세리가 고백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13절)라는 기도에서 “불쌍히(히라스코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자신의 죄가 속죄를 통해서 사해질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십일조를 드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의롭지 않았다. 돈을 좋아하고 불의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눅 16: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눅 20:47) 그들은(서기관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저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대속(불쌍히 여기소서)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감사하는 대림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6가지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3가지 해야 할 것입니다.

- 1)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 2)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 3)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 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 5)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 6)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처럼 3가지씩 묶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까닭은 12:2절에서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 5:44).

(마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 6: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함께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른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눅 10:27).

(눅 10: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은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 3: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과 악한 것’임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 2:2-5)

-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등이 굽은 채로 살았던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4번 등장하는 데 (4:31-31; 6:6-11; 13:10-17; 14:1-6) 흥미롭게도 그 가운데 3번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14:1-6절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참석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병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뼈와 근육이 뒤틀려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움직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본문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붙잡고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놓였다(아풀루오, ἀπολύω)’는 단어가 죄수들이 석방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점은 더 이상 그 여인이 귀신에게 매여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고쳐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 손을 얹으시자 18년 동안 뒤틀려 있던 몸이 ‘즉시(‘곧’으로 번역, παραχρήμα, *parachrēma*) 퍼졌다.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즉시’ 치료가 되었음을 자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1:64; 4:39; 5:25; 8:44, 47, 55; 18:43; 19:11; 22:60). 18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갔고 뒤틀렸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반응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소나 나귀를 ‘풀어주었고’(15절) 예수님은 여인을 ‘풀어주셨습니다’(16절). 어떤 것이 더 선을 행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 12:8)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 소나 나귀를 끌어내는 일이나 질병에 놓인 여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요 5: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귀신에 사로 잡혀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의 딸’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 평화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정욕에 마음을 뺏겨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8-9절)와 어떻게 오시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10-13절).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시편 90: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천 년을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시 90: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던 것입니다.

(벧후 3: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벧후 3: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벧후 3: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며 반드시 오십니다. 그 때는 ‘도둑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1-12절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벧후 3: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랑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정욕에 휩싸여 살게 됩니다. 개가 토하고 돼지가 똥굴던 더러운 웅덩이와 같은 발람의 삶(벧후 2:22)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소망하고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벧후 1:4)

우리도 사랑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ὁ κόσμος)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3:14절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수 천년 전 사건으로 되돌아갑니다. 민수기 21:4-9절의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을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들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고 모두 나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다릅니다.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보는 것이 곧 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46절에서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것은 보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참고로 요한복음 20:29절은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됨을 강조합니다.

(요 2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17절)”는 말씀은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요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미움의 속성을 가진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요일 3:12). 악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tekna theou*)’가 되었음을 10회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일서에만 4회 등장합니다.

(요일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일 3: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일 5: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요한일서가 강조한 이유는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녀라면 그가 장성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역시 그 사랑을 자녀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atoning sacrifice)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요일 4:12). ‘마땅하다(ought)’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명령이 담긴 표현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마 22:37-40)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억하는 세 가지의 삶을 강조합니다.

- 1)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8:1-17).
- 2) 구원을 소망합니다(8:18-30).
- 3)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8:31-39).

본문의 시작을 ‘그런즉(therefore)’으로 한 이유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롬 8:29-30) 이유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씀 역시 우리를 대적할 대상이 없거나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위협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7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롬 8:31)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임으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롬 8:17),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느니라’의 시제는 부정과거로 이미 이겼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33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말씀합니다.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을 받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자들은 넉넉하게 대적자를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8-39절은 다시 반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10가지 요소를 기록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 백 가지의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5:11-15), 그 다음에 화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5:16-19).

사도들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11절)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그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구약적 표현입니다. 시편 14:1절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임을 강조한다.

(시 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했기 때문입니다(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임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갈 5:22)고 고백합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16-19절은 이 말을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으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화목(reconciliation)’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목은 단순히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롬 5: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전도가 나를 행복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까지 인내와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도가 행복하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중에 한가지는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과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는 순간 지금의 행복이 너무도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15:1-17)의 한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8절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열매는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맺는 포도열매를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맺어야 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분쟁과 다툼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은 ‘나(예수님)’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9-10절에 3번씩이나 반복된 ‘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15:1-17절에 ‘거한다’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거한다’란 단어의 뜻은 단순히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guarantee*)’을 의미합니다. 전자제품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 품질 보증서(*guarantee*)를 꼭 확인합니다. 보증서가 있어야 나중에 A/S(*After Servic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하면’이란 말은 내가 ‘*made in Jesus*’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보증서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함께 하는 삶을 의미한다.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15절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것’과 연관이 있는 2:19-22절의 내용 때문입니다.(엡 2:19-22)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18절)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방에게 복종할 것과 그의 종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울은 예수의 이름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롬 14: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빌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엡 3: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계속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간구를 했습니다.

- 1)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 2)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 3)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음을 안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을 고난과 수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목상하며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목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4-12절은 구브로에서, 그리고 13:13-52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안디옥의 모든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유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언급한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행 11:22-26).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의 결과는 화목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행 13:50)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때문임을 알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다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사도들에게까지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영접하지 않는 자를 향해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이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을 향해 발의 티끌을 떨어 버렸습니다. “발의 티끌”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뒤에 (창 19:24) 남은 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눅 9: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향하던 제자들은 좌절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부활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5절)’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던 돌은 여럿 장정이 힘을 써야 움직일만한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신에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막 16:1-2)

-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준비한 향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28절에서 언급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타난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타났던 바로 그 현상(마 27:51-52)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먹기나 했겠습니까?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가장 기쁘게 했던 소리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을 것을 염려해서 먹지 않았고, 고기를 먹던 자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없었기에 별 상관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무시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이어 성경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13-16절에 기록한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전 8: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방언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고전4:20)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다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작 먹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욕과 술 취함과 모욕하는 것과 속여 빼앗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고전6:9-10).

18절은 다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먹는 문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douleuō)’으로 번역된 동사의 명사형은 ‘종(slave)’입니다. 당시 종은 철저히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또는 따르는 자라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칭찬받다’(18절)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인정받다’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비판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비판과 다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기쁨)을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일찍 떠났기에 할 수 있으면 빨리 되돌아가고 싶었으나 사탄의 저항으로 길이 막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개종자들을 향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4-16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낼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함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전 1: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어찌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하기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18절의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진정으로 원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아덴에 머물게 되자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살전3:1-5).

(살전 3:5)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방문한 디모데는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살전3:6).

(살전 3: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란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떠났으나 보고 싶고, 막혔으나 기쁨이 된 것은 고난과 환난 중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언제나 기쁨을 줍니다. 기쁨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분명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대림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했는데, 이 시험은 사회적 배척과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8:21)

“여러 가지 시험”이 말해주는 것은 이 시험(trial)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를 힘들게 하는 시험을 노인에게는 노인이 힘들어 할 시험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시험을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하거나 믿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당장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만 그것이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6: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 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이며 더욱 주를 의지하게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벧전 1:6)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인내(히포모네이- hypomonē)’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15절과 야고보서 5:11절이 ‘인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눅 8: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약 5: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옳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두 마음을 품거나, 세상과 벗이 되고 자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1:7-8; 4:4-5)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주님이 도우십니다.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히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14:27-28)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더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인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다시 올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이 슬프거나 괴롭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제자들이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키길 원하신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0: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특히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가장 큰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약 2: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기쁨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산상수훈(5-7장)에 이어서 8:1-9:35절은 9번에 걸쳐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3개씩 묶어서 3번 등장하고 마지막 9:36절은 왜 예수님께서 그 같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가운데 본문은 나병환자(8:1-4), 백부장의 하인(8:5-13)에 이어 3번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곳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자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막 1: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막 3: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런데 왜 베드로의 장모는 회당이 아닌 베드로의 집에 누워있었던 것일까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앓고 있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열병(*pyretós* - fever, burning heat)”이란 어떠한 병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열병을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나타난 질병으로 믿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빨갛게 변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장모를 자신의 집에 모신 것은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자신에게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금기시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치료해주셨습니다.

여인에게 임한 저주가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이 여인에게 옮겨갔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수종 들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디아코니아’와 같은 단어로 ‘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무조건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7:55절은 단어의 의미를 보다 잘 설명해줍니다.

(마 27:55)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기쁨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던 나병뿐 아니라 이방인의 병도 치료하여주시고 귀신들린 병으로 여겨졌던 열병까지도 고쳐주심으로 희망과 구원의 메시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1절에서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고 나사렛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반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장에는 3번이나 나사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눅 1: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눅 2: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눅 2:39)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눅 2: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장소가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던 요셉이 나사렛에서 생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계산 곳은 그 어디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 1: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신다”는 이사야 61:1-2절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글이 이루어졌음(21절)을 밝힌 것은 2:11절에서 “오늘” 구주가 태어나셨음을 강조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합니다.

(눅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은 구주가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쁨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 하여 무시하고,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행한 기적만을 요구한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이란 장소와 요셉의 아들이란 편견에 사로잡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학력, 건강, 성별,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브라임”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후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때를 “어렸을 때”(1절)라고 표현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 없이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출 4: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해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물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조차 부족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출 15:22-26)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자주 원망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민수기 21:6-9절의 불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출 15:26)

호세아 11:1절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15절에서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부르신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으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와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요 13:34)